

中國 朝鮮族의 服飾研究(I)

— 婚禮服에 관하여 —

한양대학교 의류직물과

김진구

서원대학교 의류직물과

김순심

目 次

I. 序 論

II. 中國 朝鮮族의 移住

III. 中國 朝鮮族의 婚禮服

IV. 結 論

참고문헌

I. 序 論

人間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通過儀禮인 婚禮는 남녀 結合에 대한 社會의 허가를 받고 認定받고자 하는 公開發의 표현이다. 婚禮에 사용된 婚禮服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져오는 繼承力을 가지며 歷史性과 社會의 變遷에 따라 변하는 動態性을 지니고 있다.

延邊 朝鮮族은 19C 중엽부터 中國으로 移住해간 우리와 같은 民族으로서 生活樣式이나 風俗에 있어서 同一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社會 文化的인 背景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떤 것은 適應 過程에서 生命力을 잃고 歷史의 흐름속에서 埋沒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樣相을 나타내기도 하여 獨特한 面을 지니고 있다. 근래 中國과 우리나라와 修交가 성립된 이후 많은 學問分野에서 中國 朝鮮族에 대한 研究가 활발히 展開되고 있으나 服飾 分野에서는 그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論文에서는 중국 연변 조선족의 복식 연구의 일환으로 社會 文化的인 큰 變化를 겪으면

서 婚禮服이 어떻게 變化되었는가를 服飾 人類學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中國 朝鮮族의 복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자료는 1992년 12월 22일부터 약 1개월여간 현지에서 滯留하면서 參與 觀察과 주민들과의 面談등을 통해 生活史와 婚禮 資料를 蒐集하였다.

II. 中國 朝鮮族의 移住

朝鮮族이 오늘날 延邊地域에 집단적으로 移住하여 居住하기 시작한 것은 朝鮮朝 後期인 18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원래 滿洲는 淸朝의 聖地로서 여기저기 封禁地域이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封禁令이 廢止됨으로써 10년간에 걸친 함경도 지방의 凶年으로 餓殍은 농민들이 새로운 耕作地를 찾아 비교적 사한이 살지 않으면서 땅이 肥沃한 淸나라 領土의 間島 즉, 오늘날 延邊으로 移住한 것이 朝鮮族 集居地 형성의 始發이다.¹⁾

그후 일제에 의해 朝鮮이 合併되면서 일제의 經濟의 수탈과 農土를 빼앗긴 농민들이 굶주림을 벗

1) 최왕래·진통화·주성화, 延邊人口興計劃生育簡論, 延吉: 延邊 人民出版社, 1989, p.771.

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 滿洲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個人的인 이유뿐만 아니라 日帝가 滿洲 침략을 위한 橋頭堡의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計劃的인 集團移民 政策을 실시함으로써²⁾ 수많은 朝鮮의 농민들은 겨울날 영하 40도의 滿洲의 허허 벌판에 내던져지게 되었다. 滿洲로 이주한 朝鮮族은 나쁜 自然 條件과 滿洲族 地主의 횡포, 일제의 組織的인 착취로 매우 비참한 生活을 하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朝鮮族은 集團村을 形成하여 生活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集團村 형성은 朝鮮族의 民族 正體感과 同質性을 維持시키는데 크게 貢獻하게 되었다.

日本은 朝鮮人을 自國民이라하여 보호한다는 구실로 滿洲地方을 침략하였고 領事館을 설치한 후 朝鮮人을 관리하였으며, 日本式 教育과 日本語의 사용을 強要하고 착취하였으며, 中國은 朝鮮人의 滿洲 滯留가 일본 세력을 誘導한다는 이유로 中國 國籍을 取得하도록 강요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朝鮮人에 대해서는 小作權 剝奪과 中國으로부터 추방하는 政策을 펴는 등³⁾ 불리한 입장에서 生活基盤을 형성한 苦難의 歷史였다.

日帝 패망후 나라가 獨立은 되었으나 生活基盤이 형성된 朝鮮族은 中國땅에 남게 되었고, 中國人으로서 中國의 歷史를 겪게 되었다. 國民黨 정부군과 共產黨과의 내란을 거쳐 1949년 新中國 成립으로 共產政府가 들어서면서 少數民族 政策에 따라 延邊大學이 설립되어 民族 教育을 실시하고, 각종 朝鮮族 民族文學, 民族 藝術 活動도 활발해졌으며, 土地改革으로 가난한 小作農과 농업노동자가 自作農으로 변신하였다. 춥고 고달프던 生活에서 겨우 벗어나게 될 무렵 60년대 중반부터 朝鮮族은 文化革命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되었고, 民族主義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강한 民族 意識을 특징으로 하는 朝鮮族의 受難은 어느 民族보다 컸

다고 한다.⁴⁾

1977년 10월 中國은 公式的으로 文化革命을 청산하면서 左派의 革命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國際的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改革 開放政策을 추진하게 되었다. 少數民族의 文化와 正體意識을 중요시하고 民族自治를 보장하는 民族政策이 다시 承繼되었다.

本 論文을 위한 조사 지역인 延邊自治州에는 中國 조선족 전체의 약 42%인 약 75만명이 살고 있으며 총 面積 42700킬로미터로 中國 東北部에 위치하고 있다. 行政 區域으로는 吉林省에 해당되고 自治州로 성립된 것은 1952년 이다. 延吉市와 圖門市 2개시와 延吉縣, 敦化縣, 和龍縣, 汪清縣, 安圖縣 등 6個縣과 17個鎮으로 나누어져 있다.⁵⁾ 延邊自治州에서는 순수 한글로 된 문예지와 신문 및 잡지들이 出版되며, 거리의 간판도 漢字와 함께 한글로 되어 있다.

延邊 인민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우리말 위주의 放送을 하며 延邊大學 및 고급중학교와 중등전문학교, 일반중학교, 소학교등의 民族 學校에서는 韓國語로 교과서를 만들고 수업도 우리말로 이루어지고 있다.⁶⁾ 밥과 김치와 된장을 기본으로 하는 食生活을 하면서 설, 대보름, 추석등의 명절을 지키고, 환갑과 돌잔치등은 傳統的인 形式으로 지켜지고 있으며,⁷⁾ 잔치에는 우리 民謠에 맞추어 장구, 팽가리등을 사용하며 춤을 추기도 한다.

이들이 韓國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中國이 南韓의 친척사이에 相互 訪問을 許容한 이후로 친척 訪問이 가능해지면서 韓國에 대한 母國 意識이 증가되었다. 또한 1986년 亞細亞 게임과 1988년 올림픽으로 韓國의 發展을 확인하게 되고, 韓國이 中國에서 朝鮮族의 位相을 크게 높이는 契機가 됨으로써 民族의 矜持를 느끼게 되었다.

지금은 여러가지 學術交流나 技術, 文化, 經濟

2) 한상복·권태환, 中國延邊의 朝鮮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2, p.38.

3) 김응렬, 中國 朝鮮族 社會研究, 한국 복지 연구소 출판부, 1992, p.96.

4) 한상복·권태환, 前揭書, pp.77~78.

5) 진태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민족 주체성과 동포애, 민족 재결합의 모색, 통일 교육 자료 제35집, 국토 통일원 : 1988, pp.40~49.

6) 김광억, 海外 移住民의 生活, 韓國 社會의 文化 제15집, 정신 문화 연구원 : 1991, p.335.

7) 김형직, 중국 조선족의 전통 문화와 그 변화, 재중 한국인에 대한 국제 학술회의 발표논문, 하와이 대학 : 1988.

交流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면서 한국을 선망의 祖國으로 여기고 있다.

Ⅲ. 延邊 朝鮮族의 婚禮服

延邊의 朝鮮族은 婚禮式을 新式과 舊式으로 區分짓고 있었으며, 舊式에서 新式으로 交替되는 時期를 대략 1930년대 後半에서 40년대 初로 보고 있었다.⁸⁻⁹⁾ 이때는 일본이 滿洲를 占領하고 우리 民族의 民族精神을 抹殺하기 위하여 日本語를 사용케하며, 일본식 教育을 시켰다. 또한 새로운 文物이 유입됨으로써 朝鮮人 固有의 美風良俗에도 變化가 일어나고 혼례식에 있어서도 變化가 생겼다.

본 研究者는 舊式 婚禮式을 傳統 婚禮式이라 하고 新式 婚禮式은 用語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두 婚禮式을 區分하여 時代의 흐름과 더불어 婚禮服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傳統 婚禮服

1) 新郎의 婚禮服

우리 나라는 여러가지 制度에 있어서 中國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婚姻制度도 中國의 儀式질차 및 禮服등을 모방하였다. 古代 婚禮儀式은 朱子의 文公家禮에서 유래한 것으로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의 六禮로 되어 있어 민감함으로 속종때 陶庵 李紹는 「四禮便箋」을 편찬하여 婚禮를 議婚, 納采, 納幣, 親迎의 四禮로 지부게 함으로써 일반 民家에서도 이를 좃았다.¹⁰⁾

婚禮服에 대한 많은 研究¹¹⁻¹⁵⁾에서 나타난대로

우리나라 民家에서의 傳統 婚禮服으로써 新郎의 禮服은 紗帽, 團領, 胸背, 帶, 靴로 구성되어 있고, 新婦의 禮服으로는 圓衫이나 활옷, 花冠이나 簪頭 屨를 사용하였다.

延邊 朝鮮族들은 1930년대 까지도 國內에서와 같이 議婚, 納采, 納幣, 親迎의 四禮를 좃아 婚禮를 치루었으며, 新郎은 紗帽冠帶로 盛裝하여 新郎으로서의 禮義를 갖추었다고 한다.¹⁶⁾

원래 紗帽는 文武百官이 평상 執務시 官服인 常服에 착용된 附屬冠物으로써 僕頭에서 유래되었으며, 주로 竹絲와 밭총으로 짜고 黑漆을 하여 그 위에 가는 비단실로 짠 黑絲布를 씌웠다. 이에서 색깔이 검어 烏絲帽라고도 하였다. 기본 형태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의 帽頂部를 이루고 있으며 뒷면 중심부에 좌우로 角을 끼웠다.

紗帽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帽體의 높음과 낮음, 兩角의 길이, 角의 모서리 모양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朝鮮朝末까지 가장 많이 쓰인 冠帽로 고종말 服裝改革時에도 一品에서 九品까지 大禮服과 小禮服에 紗帽를 착용하였다.¹⁷⁾

團領은 옷깃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直領이 짧은 것인데 비하여 목둘레가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朝鮮朝 文武官의 公, 常服으로 착용되었다. 經國大典에서의 官服 구조는 一品에서 正三品까지는 紅團領을, 從三品에서 五, 六品까지는 靑을, 七品에서 九品까지는 綠을 입었으며, 常服에는 胸背를 붙였다.

胸背는 團領의 職品을 표시하는 것으로 鳥獸物을 수놓아 官服의 가슴과 등에 붙였다. 단종 2년에 제정한 胸背제도는 大君이 麒麟, 王子는 白澤, 문

8) 향경, 조선족 민족 연구 제1권, 인민 대학 출판사.

9) 차명숙, 조선족들의 혼인 순서와 그의 민화, 인민 민족 박물관 : 1992.

10) 유송옥, 사대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 문화재 보호 협회 : 1982, p.234.

11) 이순홍, 한국 혼례의식에 관한 복식연구, 세종대 : 1988.

12) 박경자, 우리나라 婚禮服에 관한 研究, 성신 연구 논문집 2집 : 1968.

13) 박성실, 이조시대의 혼인제도, 수도여사대 : 1968.

14) 박금주, 사대권람의 혼례복과 흰색 혼례복과의 비교 연구, 상학관대 : 1989.16) 송명진, 우리나라 婚禮服 變遷에 관한 研究, 이화여대 : 1974, p.13.

15) 향경, 前掲書, p.30.

16) 정영자, 紗帽에 관한 研究, 한양여전 논문집 : 1982, pp.223~241.

17) 유희경, 한국 복식 문화사, 교문사 : 1991, p.234.

관 一品은 孔雀, 二品은 雲鶴, 三品은 白鷗이었다. 그후 영조 10년에는 堂上官은 鶴이고, 堂下官은 鵝로 변경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고종때 文官 堂上官은 雙鶴, 堂下官은 單鶴, 武官 堂上官은 雙虎, 堂下官은 單虎로 정하였다.¹⁸⁾

官服에서는 職品을 표시하는 革帶를 띠었는데 이것을 官帶라고 한다. 朝鮮시대의 「經國大典」禮典 儀章條에 보면, 正一品은 犀帶, 正二品은 鍍金帶, 從二品은 素金帶, 正三品은 鍍銀帶, 從三品은 素銀帶, 四品은 素銀帶, 五品에서 九品까지는 黑角帶였다.¹⁹⁾ 민간의 婚禮시에는 보통 角帶를 사용하였는데 世宗實錄 삼년구월 卷 십삼에 보면 일부 백성에게는 「婚姻時 本非帶 金銀者 隨其時 散用 角帶 條兒」 즉, 「婚姻할 때 品帶에 銀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角帶, 條兒를 사용하라」는²⁰⁾ 것으로 미루어 보아 官服의 경우 민간에서 婚禮服으로 사용된 것은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

婚禮시 사용된 木靴는 바닥이 나무이고 신목은 천으로서 검은 융같은 것으로 겹을 씌우고, 솔기에는 紅色선을 돌렸으며 그 모양은 반장화 비슷하여 목이 길고 코끝이 뾰족하지 않고 넓적하였으며²¹⁾ 이것은 百官들의 公服이나 常服에 착용되었다.

사진 1)은 1938년 白金懸 東光村에서 結婚한 朴老人의 婚禮式 사진으로 新郎은 검은 紗帽를 쓰고, 靑色의 官服 團領을 입고, 胸背와 角 띠를 매고 있다. 이때 胸背는 紅色 바탕에 雙鶴이 하얀색으로 수놓여 있다. 靑色 官服이면 胸背의 바탕색도 靑色이어야 하는데 紅色 바탕을 사용한 것은 더 쉽게 보이고자 함이었든 것 같다. 사진 2)는 龍井博物館에 所藏된 新郎의 禮服으로, 團領이며 廣袖

의 두리소매이고, 胸背는 靑色 바탕에 雙鶴이 수놓여 있으며 兩脇下가 터져 있어서 3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감이 紅色이고 겹감은 靑色으로 이는 陰陽의 觀念에서 二性之合 즉, 男, 女의 結合을 象徵하는 象徵的 意味로 사용되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사진 1)에서 본 新郎의 禮服과 사진 2)의 龍井博物館에 所藏된 官服으로 미루어 보아 연변에서는 新郎의 禮服으로 靑色 團領이 사용되었다.

예전부터 우리 民族은 新郎의 婚禮服으로 堂上官의 官服인 紅團領의 雙鶴 胸背가 許容되었으며²²⁾ 國立博物館에 所藏된 平生圓屏風에 나타난 新郎의 혼례복도 紫赤色 官服이다.²³⁾ 그러나 紫色 禁止 措置에²⁴⁾ 나타난 것 처럼 紅色염료인 芝草와 紅花가 귀하고 값이 비싸므로 靑色이 民間의 婚禮服에 사용된 듯하다. 國內에서도 新郎 官服色은 地方마다 차이가 있어서 忠淸道²⁵⁾와 全羅道 지역²⁶⁾은 靑色 團領이고 慶尙道²⁷⁾의 경우 紫色을 使用하고 있다.

延邊 朝鮮族들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紗帽冠帶를 구하지 못해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婚禮를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심지어 移住 初期에는 두루마기조차 準備하지 못할만큼 生活이 곤란한 집들이 많아서 婚禮를 치를때 두루마기를 빌려입고 장가들기도 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두루마기는 玉色이 좋아보이는 하지만 實際로는 광목에 검정물을 들인 것을 많이 입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는 집에서만이 세루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²⁸⁾

혼례식은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인 추운 겨울에

18) 유희경, 前揭書, p.223.

19) 고복남, 우리나라 복식중 帶의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4권 : 1976.

20) 유희경, 한국 복식사 연구, 이대출판부 : 1975, p.314.

21) 조효순, 조선 후기 복식의 풍속사적 연구 : 1986.

22) 김소영, 국립 중앙 박물관에 소장된 평생도 병풍에 나타난 통과 의례 복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1988, p.18.

23) 이상은, 조선왕조복식사론, 동방도서, 1992, p.326.

24) 한국민속민속종합조사보고서, 외생촬영,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p.164.

25) 韓國民俗綜合報告書, 上揭書, p.244.

26) 韓國民俗綜合報告書, 上揭書, p.282.

27) 중국 연길 소영촌, 최봉현 할아버지 증언(75세).

28) 연변에서는 털실로 짠 것을 게도라 하였다. 털서츠를 게도 셔츠, 털실로 짠 목도리는 게도 목도리라고 한다.

치르는 경우가 많아서 紗帽속에 남바위와 같은 방한모를 결들이거나, 무명, 명주천이나 게도 수건²⁹⁾을 목에 감아 추위를 견뎠으며, 紗帽가 벗겨지지 않도록 紗帽의 아래쪽 양끝에 고무줄을 매달아 턱밑에서 묶었다고 한다.³⁰⁾

바지 저고리는 素色이 대부분이지만 바지는 灰色이나 土色을 입기도 하였다. 材料는 광목이나 당목, 또는 부명이었다. 婚禮服 바지 저고리는 숨을 두는 것이 原則이지만 가난하여 숨을 놓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지 허리춤이나 저고리 옷고름, 옷섶등 옷의 어느 부분에 조금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³¹⁾ 조끼는 주로 灰色이나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婚姻服에 숨을 두는 婚俗은 國內에서도 30~40년전까지 있었던 것으로 移住해간 연변 朝鮮族 社會에서도 이러한 風俗이 存續됨을 통하여 한 民族의 風俗이나 慣習이 空間과 時間을 超越하여 傳受되는 한 面을 볼 수 있다.

2) 新婦婚禮服

신부의 혼례복은 綠圓衫에 簇頭巾을 사용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할 때는 치마 저고리에 얹은 머리, 느릅수건³²⁾으로 婚禮式을 하는 경우가 히다하였다.

新婦의 禮服으로 사용되었던 圓衫은 본래 皇后, 妃, 嬪의 小禮服으로 內, 外命婦의 大禮服으로 착용되었으며, 着用者에 따라 衣色이 달라 皇后는 黃圓衫, 王妃는 紅圓衫, 嬪은 紫赤圓衫, 공주와 왕후, 그외 班家婦女들은 綠圓衫을 착용하였고 綠圓衫은 民間에서의 婚禮服으로 利用되었다.³³⁾

圓衫의 형태는 衫襟으로 뒤가 길고 앞은 짧으며, 소매는 넓고, 겨드랑이 아래는 봉하지 않으며,

紅, 白, 黃을 이어 소매끝에 잇는다.³⁴⁾ 안은 홍색이고 안가장자리에 藍色襟을 두른다.³⁵⁾

일반 庶民用 圓衫은 궁중의 것보다 치수가 좁적이고, 附金을 하지 않으며, 汗衫이 홀로 되어 있고 색동의 가지수가 많은 차이점이 있다.³⁶⁾

龍井 博物館에 소장된 圓衫은 사진 2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衫襟으로 깃은 紅色이고 소매는 黃, 紅, 靑色의 색동이 달려 있다. 안감은 玉色이고 길감은 綠色이었으며, 고름의 한면은 紅色이고 한면은 黃色의 2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 원래 綠圓衫이던 것도 綠色이어야 하는데 紅色이고, 옆이 터지지 않았으며 앞길과 뒷길의 길이가 차이 나지 않고, 안의 藍色襟이 없는 것등 여러 가지 면에서 圓衫의 形態와 차이가 많고, 소매는 넓은 편이 아니다. 고달프고 힘들게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구성법이 간단하게 변화되고 원형과 많이 달라지게 된 듯하다.

圓衫 簇頭巾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진 2에서 처럼 치마 저고리 차림만으로 婚禮를 올렸으며, 손에는 1폭짜리 명주를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한 느릅 수건을 둘러 손과 얼굴을 가렸다. 婚禮式이 끝난 후에는 이 수건을 外出時 목에다 감고다니는 목수건으로 利用하기도 하였다.

노란 저고리나 노란 반희장 저고리에 紅色 치마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가끔 초록색 빈사나 초록색 교식 저고리에 靑色 치마를 입기도 하였다.³⁷⁾ 平時에는 무명이나 삼베치마 저고리를 입고 떨어지면 기위 입었음지라도 婚禮服은 명주나 호박단, 김도양단, 유탕으로 갖춰입어³⁸⁾ 일생에 한번 치르는 婚禮의 옷만큼은 호사스럽게 입으려고 하였던 듯 하다.

29) 중국 연길시 공원가, 허윤옥 할머니.(83세)

30) 중국 연길시 화풍복장 황정숙 할머니 증언(70세).

31) 앞에 늘어 뜨려진다하여 느릅 수건이라 한 듯 하였음.

32) 유희경, 前掲書 ; 1991, p.334.

33) 고복남, 한국 전통 복식사 연구, p.248.

34) 이주원, 한국구성학, 김춘사, p.149.

35) 이순홍, 前掲書, p.225.

36) 중국 연길시 신흥가, 신보옥 할머니 증언(72세).

37) 중국 연길 소영춘, 조양림 할머니 증언(73세).

38) 중국 연길 화풍복장 황정숙 할머니 증언.

속옷으로는 단속곳, 속속곳을 着用하였다. 이것들은 대부분 흰색 삼베이었으며, 삼베는 시집살이를 시원하게 하라는 뜻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³⁹⁾ 그러나 형편이 좋은 집에서는 무명이나 팥묵으로 만들기도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삼베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함에 대한 合理化인 것으로 생각한다. 버선은 흰 솜버선을 신었다.

婚禮式때 新婦는 뒤로 땀아 내렸던 땀기 머리를 풀고 여러개의 달비⁴⁰⁾를 들여서 양쪽을 땀은후 가운데로 다시 합쳐서 새의 등우리처럼 동그랗게 서려서 엮은 후 왼쪽에 고를 내고 오른쪽에 땀기를 들이는 엮은 머리를 하였다. 엮은 머리를 둘레 머리라고도 하였다.⁴¹⁾ 사진 3은 龍井 博物館에 所藏된 달비로 東光村 박씨 할아버지의 婦人이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모양이다.

있는 집에서는 까만 비단 형겅위에 구슬을 달고 술을 늘어뜨려 만든 머리꼭대기관을 엮었다고 하는데⁴²⁾ 簇頭리를 머리 꼭대기관이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이는 설움이 드림을 늘어뜨리기도 하였다고 한다.⁴³⁾ 이 설움이 드림은 圓衫을 입고 뒤에 드리웠던 큰 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簇頭리는 일명 簇兒 또는 簇冠이라고도 하는데⁴⁴⁾ 고려 후기에 元의 宮中制였던 것이 고려 궁중으로 들어와 朝鮮 왕조에 와서도 宮中 樣式으로 계속 사용되었고, 영정조때 가체를 금하고 簇頭리의 사용을 장려한데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簇頭리는 검은 비단으로 만들어 아래는 둥글고 위는 여섯모로 되었으며 솜이 들어 있고 그 가운데를 비게하여 머리에 이게 한 것으로,⁴⁵⁾ 珊瑚나 밀화, 眞

珠로 장식하여 王妃나 세자빈도 장식 사용하였으며 庶民層의 부녀들도 비록 寶石 裝飾은 아니었을지언정 婚禮式에는 圓衫을 입고 머리에 簇頭리를 썼었다.⁴⁶⁾

연변 조선족 신부들도 이 簇頭리를 사용하였으나 없는 집에서는 簇頭리를 쓰지 못하고 엮은 머리만으로 婚禮式을 치루었다. 혼례시 깔찌라고 하는 소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거나 꽃신을 신었는데 꽃신은 짚이나 삼에 물을 들여 만든 신으로 최고급으로 여겼으며, 대부분의 경우 초신이라 하여 麻로 만든 미투리를 신었다.⁴⁷⁾ 또, 백지초신(사진 4)이라 하여 삼에 백지를 말아 꼬아서 만든 미투리를 신으면 그 觸感이 좋아 高級으로 여겼는데 이것을 婚禮式때나 얻어 신어 보았다고 한다.⁴⁸⁾

2. 新式 婚禮式

1940년 이후 新式 結婚式이라하여 舊式보다 婚禮 절차등이 簡素化되고 衣服에 있어서도 舊式과는 다른 婚禮式이 유행되었다. 男子들의 경우 대부분 洋服을 着用하게 되었다. 혼례식은 주로 식당이나 예배당, 학교 등에서 하였으며, 主禮者가 있었고, 男女 아이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新郎新婦 앞에서 서 걸어 들어올때와 나갈 때에 꽃을 뿌리는 風俗이 생겨서 現在까지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⁴⁹⁾

1) 1940~50년대

<신랑의 혼례복>

하이칼라 머리에 증절모나 캡을 쓰고 가끔 털모자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구레빠나 세루, 단련으로 만든 세비로 洋服을 입고 와이셔츠에 줄무늬의 領帶(延邊에서는 넥타이를 領帶라 함)를 着用하

39) 다래를 달비라고 하였음.

40) 중국 연길 연서가, 임이언 할머니 증언.

41) 중국 연길 공원가, 허윤옥 할머니 증언.

42) 중국 연길 공원가, 여진옥 할머니 증언(78세).

43) 이갑희, 족두리 소고, 이대 : 1976, p.14.

44) 이갑희, 前揭書, p.35.

45) 송치호, 한국 민속 백년, 양서 문화사 : 1979, p.302.

46) 여진옥 할머니 증언.

47) 중국 연길 소영춘, 조양림 할머니 증언.

48) 차명숙, 前揭書.

49) 중국 연길 연서가, 배영순 할머니 증언.

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洋服과 帽자는 감색이나 검정색이 대부분이었으며, 洋服이 없을 경우에는 袴를 내어서 입기도 하였다. 신발은 구두를 신기도 하였지만 단련화나 정구화라 하는 運動靴를 신기도 하였고, 왼편 가슴에는 빨간 造花를 달았다.

아랫단 부분이 밖으로 넘겨진 커피스 洋服 바지에 검정 두루마기를 着用한 사람이 있었는가하면 니즈 오베라 하여 모직 오비를 입고 結婚式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양복에 두루마기와 같은 전통 복식과 서양복식의 混用은 서양복으로 移行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

〈新婦의 婚禮服〉

1940년 대에도 新婦의 머리는 달비로 들레 머리를 하였으며 그 위에 너울이라하는 베일을 쓰기 始作하였다. 너울에 꽃을 직접 꽂지 않고 들레 머리에 꽃과 구슬을 꽂기도 하였다.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입거나 초록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흰색 치마 저고리를 着用하기 始作한 것⁵⁰⁾이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西洋에서의 웨딩드레스의 影響이라 생각된다.

쪼오겏으로 만든 너울은 그 길이가 길지 않고 치마 길이보다 약간 짧은 정도였으며 머리에 씌울 때 앞이마가 가리워져 쓰개치마를 쓰고 있는 듯한 감을 주었다고 한다.⁵¹⁾ 흰 수갑(장갑을 수갑이라 하였음)을 끼고 生花가 비싸므로 종이에 여러가지 색을 물들여 만든 造花 꽃다발을 들고 新婦의 왼편 가슴에도 꽃을 꽂았다. 신발은 코신이라고 하는 고무신이 나오기 始作하여 흰색 비선과 흰색 고무신을 신었다.⁵²⁾

자미사, 유등, 로방주, 사진막고 등을 치마 지고리감으로 使用하고 人造絹이 나오기 시작하여 이것을 禮緞으로 많이 使用하였다.⁵³⁾

1950년대 들어서면서 이마를 가리던 너울은 이마와 앞머리를 露出시켜 着用되었다. 그 이유는

퍼머넨트 머리가 流行하기 始作하여 처녀시절 양갈래로 묶던 머리를 結婚式을 올리면서 퍼머넨트 하는 경우가 많아 이 퍼머넨트 머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머리에 쓰는 너울은 약 10Cm 가량 접어서 두겹으로 한 후 윗부분은 폭을 좁게 주름잡아 오므린 후 끝에 고무줄이나 가는 끈을 매달아 머리 밑부분으로 넣어 固定시키는 役割을 하도록 하였다. 着用時에는 주름 부분이 머리 위에 닿게 하고 造花를 한, 두송이 꽂기도 하였다.

앞머리만 퍼머를 하고 뒤는 쪽지는 경우도 많았다. 사진 6은 1952년에 結婚한 延邊大學 金章郁 教授의 사진이다. 집에서 結婚을 하였으며 新婦는 흰장갑을 끼고 고무신을 신고 있다. 사진 7은 1956년에 結婚한 閔炯一씨의 사진으로 신랑은 검정색 더블 브래스트 洋服에 넥타이를 맨 차림이며, 新婦는 길이가 3m 가량되는 긴 너울을 着用하여 新婦의 앞까지 길게 펼쳐져 있다. 꽃다발도 크며 무너있는 흰색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이 時期의 헤어스타일은 퍼머넨트였으며 너울은 머리에 딱 붙여져 있고, 머리에는 별다른 裝飾을 하지 않거나 造花꽃을 몇송이 꽂는 정도였다.⁵⁴⁾

이때까지도 저고리는 솜을 넣은 솜저고리를 입었으며, 여름에 결혼하여 솜을 두지 못할 경우에는 저고리 한 부분에 솜을 조금 두는 風俗은 여전하였다.

2) 1960년대~70년대

1960년대에 始作된 文化 革命으로 약 10년간은 社會가 대단히 不安하였고, 生活이 궁핍하였으며 民族主義에 대한 탄압이 기세었으므로 結婚式을 성대하게 치루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新郎 新婦 모두 中山服 차림에 모택동 主席의 語錄을 가슴에 들고 結婚式을 치루는 경우가 허다하였다.⁵⁵⁾

그러나 70년대 後半에 들어서면서 社會가 어느 정도 安定이 되면서 다시 結婚式에 관심을 기울였

50) 중국 연길 서시장 화풍복장 황정숙 할머니 증언.

51) 중국 연길 서시장 배영순 할머니 증언.

52) 차명숙, 前掲書.

53) 연변대학 김장옥 교수 부인의 증언.

54) 연변대학 박경휘 선생의 증언.

55) 중국 연길 신흥가, 연길 혼례 복장 유옥란씨 증언.

다. 사진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新郎의 옷차림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人民들이 많이 입었던 감색의 中山服 차림이었으며 캡 모자를 썼다. 新婦는 흰색 한복 치마 저고리에 너울을 쓰고 앞에 花冠을 썼다. 가슴에는 新郎이나 新婦 모두 造花로 만든 빨간 꽃과 꽃아래에 榮光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리본을 달았다.

이것은 文化革命 期間의 社會 분위기를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結婚을 하게 됨이 黨의 큰 配慮이며 榮光스럽게 여긴다는 標識이 아니었던가 여겨진다. 新婦의 한복감은 비닐론 스포츠, 금강주 같은 合成纖維가 많이 使用되어지기 始作하였다. 너울감은 오간디에 점무늬가 찍힌 천이 많이 使用되어졌다. 신부들은 보통 구두에 흰양말을 신었으며, 구두는 흰색의 굽높은 것이었다.

3) 1980년 이후

1980년대 들어서서 開放 改革의 影響으로 經濟가 發達하게 되고 全般의인 社會분위기가 자유스러워지면서 사진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新郎의 禮服은 中山服을 입는 대신 洋服 차림으로 바뀌었으며, 흰색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와 캡모자가 80년대의 典型的인 新郎의 스타일이다. 그러나 90년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오랜동안 착용되어져 온 帽子를 쓰지 않는 新郎들이 많아졌으며 앞가슴에 빨간색 꽃을 꽂는 것은 여전하였다. 帽子를 착용하는 것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여긴듯 하였다.

대다수의 新婦의 옷차림은 여전히 흰색 한복 치마 저고리였으나 사진 9에서 처럼 연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는 新婦들도 많아졌다. 연분홍색에 화려하게 수를 놓거나 꽃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印花 첫날이옷이라고 불려졌다.⁵⁶⁾ 이런 색옷을 禮服으로 입게 된 것은 實用的인 면에서 그 意味를 찾을 수 있다. 흰색옷은 結婚式이 끝난 후 입기가 힘들므로 아깝다고 여겨졌으며, 화려하게 보이는 색깔의 옷들이 더욱 돋보인다고 여겨져서 색깔있는 옷으로의 變化가 일어난 듯 하다.⁵⁷⁾ 옷감은 초치사, 디룬, 빛날이 같은 合成纖維가 많이 使用되고 있다. 韓國產 깔깔이가⁵⁸⁾ 최근에는 가장 人氣 있

었으며 韓國옷에 대한 選好度가 대단하였다. 新婦들의 옷 모양도 한국 치마 저고리처럼 치마를 풍성하게 하는 傾向으로 변하였다. 너울의 높이가 前代에 비해 많이 부풀려져 높아졌으며 화려하여졌고 이중의 모양을 갖게 되었다. 너울감으로는 망사가 사용되어졌으며 너울의 모양은 폭이 약 1미터이고 길이가 3미터인 망사를 2미터와 1미터로 접은 다음 주름을 잡아 花冠에 연결시켜 머리핀으로 머리에 固定시켰다. 색색의 구슬과 빨강, 초록, 노란색의 꽃, 스팅크와 반짝이를 많이 使用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너울 가장자리에 레이스를 단 것도 많아졌다. 신발은 한국에서 輸入되어온 굽이 높은 꽃 고무신 모양의 구두를 신는 傾向이다.⁵⁹⁾

IV. 結 論

본 論文은 100여년의 移住 歷史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민족의 中國 延邊 朝鮮族의 服飾 研究의 일환으로 婚禮服의 變遷에 대하여 研究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40년대 以前까지는 우리민족의 傳統 婚禮服을 着用하였다. 新郎의 경우 紗帽, 青色 團領, 角帶, 木靴를, 新婦의 경우 圓衫, 簇頭里를 禮服으로 입었다. 그러나, 生活이 빈곤한 사람들 경우, 新郎은 두루마기와 바지 저고리를, 新婦의 경우 노랑 저고리나 초록 저고리, 빨간 치마, 느릅 수건, 엷은머리, 초신을 신고 婚禮式을 올렸다.

1940년대 이후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결혼식의 영향을 받아 婚禮服에 큰 變化가 일어났다. 신랑은 洋服을 着用하고, 新婦는 흰색 치마 저고리에 하얀색 너울을 着用하기 시작하였으며 왼쪽 앞가슴에 빨간꽃을 꽂았다.

1960년대와 70년대 문화 혁명기간에는 어두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결혼식은 간소화되었고 新郎의 차림은 中山服으로 바뀌지게 되었으며 1980년 開放 改革 政策으로 經濟가 發達되고 社會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新郎의 옷차림은 洋服으로 바뀌지게 되고 新婦의 너울 모양은 화려해지고 높이

56) 중국 연길 서시장, 김화영씨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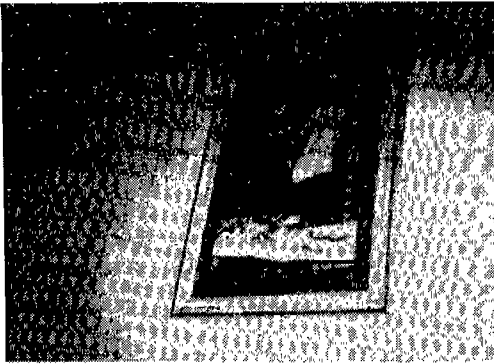
57) 연변에서는 한국에서 노방이라고 하는 감이 수입되어 깔깔이라고 불려지고 있음.

58) 중국 延吉 貿易 大厚 조영희씨의 증언.

가 높아지는 特徵을 나타낸다. 90년부터 연변조선족 新婦는 예전처럼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기도 하지만 밝고 화려한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홍색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바뀌지는 傾向이 나타난다.

時代의 흐름에 따라 衣料나 치마 저고리, 너울의 形態 등에 變化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延邊의 朝鮮族 新婦들은 朝鮮族이라면 반드시 婚禮式에

치마저고리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만큼 民族 服飾에 깊은 愛着을 지니고 있다. 중국 연변 조선족에 있어서 치마 저고리는 그들의 어려운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民族 主體性을 나타내는 道具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으며, 民族 文化의 脈을 이어가고 있는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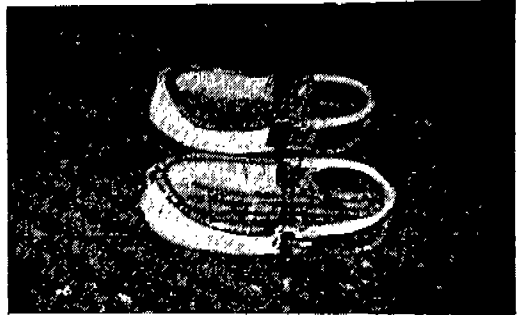
<사진 1> 1938년 박노인의 혼례식 사진



<사진 3> 다래, 용정박물관 소장



<사진 2> 용정박물관 소장, 신랑·신부의 혼례복



<사진 4> 용정박물관소장, 백지초신



<사진 5> 1952년 혼례식(연변대학 김장욱교수)



〈사진 6〉 1956년 민형일씨 혼례식 사진



〈사진 7〉 1978년 최충길씨 혼례식



〈사진 8〉 1985년 김만수씨 혼례식



〈사진 9〉 1992년 혼례식

參 考 文 獻

- 1) 김응렬, 中國 朝鮮族 社會研究, 한국 복지 연구소 출판부, 1992.
- 2) 송치호, 한국 민속 백년, 양서 문화사 : 1979.
- 3) 이상은, 조선왕조복식사론, 등방도서, 1992.
- 4) 이주원, 한복구성학, 경춘사.
- 5) 유송옥, 사례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 문화재 보호 협회 : 1982.
- 6) 유희경, 한국 복식사 연구. 이대출판부 : 1975.
- 7) 유희경, 한국 복식 문화사, 교문사 : 1991.
- 8) 조효순, 조선 후기 복식의 풍속사적 연구 : 1986.
- 9) 최창래 · 진봉화 · 주성화, 延邊人口興計劃生育簡論, 延吉 : 延邊 人民出版社, 1989.
- 10) 한국민속민속종합조사보고서, 의생활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 11) 한상복 · 권태환, 中國延邊의 朝鮮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2.
- 12) 고복남, 우리나라 복식중 대의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4권.
- 13) 김광억, 海外 移住民의 生活, 韓國 社會의 文化 제15집, 정신 문화 연구원 : 1991.
- 14) 김소영, 국립 중앙 박물관에 소장된 평생도 병풍에 나타난 통과의례 복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1988.
- 15) 김형직, 중국 조선족의 전통 문화와 그 변화, 재중 한국인에 대한 국제 학술회의 발표논문, 하와이 대학 : 1988.

- 16) 박경자, 우리나라 婚禮服에 관한 研究, 성신 연구 논문집 2집 : 1968.
- 17) 박금주, 사례변람의 혼례복과 현행 혼례복과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 : 1989.
- 18) 박성실, 이조시대의 혼인제도, 수도여사대 : 1968.
- 19) 송명진, 우리나라 婚禮服 變遷에 관한 研究, 이화여대 : 1974.
- 20) 이갑희, 족두리 소고, 이대 : 1976.
- 21) 이순홍, 한국 혼례의식에 관한 복식연구, 세종대 : 1988.
- 22) 신태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민족 주제성과 동포애, 민족 재결합의 모색, 통일 교육 자료 제35집, 국토 통일원 : 1988.
- 23) 정영자, 紗帽에 관한 研究, 한양여전 논문집 : 1982.
- 24) 차명숙, 조선족들의 혼인 순서와 그의 변화, 연변 민속 박물관 : 1992.
- 25) 향경, 조선족 민속 연구 제1권, 연변 대학 출판사.
- 26) 중국 연길시 공원가, 여진옥 할머니 증언(78세).
- 27) 중국 연길시 공원가, 허윤옥 할머니 증언.
- 28) 중국 소영춘, 조양금 할머니 증언(73세).
- 29) 중국 소영춘, 최봉현 할아버지 증언(75세).
- 30) 중국 연변대학 김장옥 교수 부인의 증언.
- 31) 중국 연길시 신흥가, 신보옥 할머니 증언(72세).
- 32) 중국 연길시 신흥가, 연길 혼례 복장 유옥란씨 증언.
- 33) 중국 연길 서시장, 김화영씨 증언.
- 34) 중국 연변대학 박경휘 선생의 증언.
- 35) 중국 연길시 화풍복장 황정숙 할머니 증언(70세).
- 36) 중국 연길 연서가, 배영순 할머니 증언.
- 37) 중국 연길 연서가, 임이연 할머니 증언.
- 38) 중국 延吉 貿易 大厚 조영희씨의 증언.

ABSTRACT

A study on Wedding Costume of Korean Nationality in Yanbian China

Kim, Jin Goo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Kim, Soon S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 Won University

As a part of study examining Korean costume remaining in Yanbian China, this study explored changes in ceremonial clothing for marriage worn by Korean(Chosun race) in Yanbian China.

About one hundred years ago, Koreans moved to Yanbian China and had worn traditional clothing for marriage ceremony until before 1940. Data were collected by true interview and field observation while staying in that area.

Samo and Dalyung for bridegrooms, Wonsam and Jockdoory for brides were usual costume for wedding ceremony, however, for couples in inferior conditions of life, Bazy and Jeogory for bridegrooms, yellow Jeogory and red Chima for brides were accepted for ceremonial costume.

As western culture came to this area in about 1940, bridegrooms wore western style suit, while brides dress in white Chima, Jeogory and Neowool. To date, Korean brides have worn traditional Chima and Jeogory for marriage ceremony though slight change has occurred in clothing material and in the forms of Chima, Geogory and Neowool.

As the practice reflected the fact that Korean in Yanbian China as established and sustained traditional costume and Korean identity even in hush socio-cultural environment.